



### 장 남 익 선생

장남익 선생, 본명 - 장보리브 니콜라예비치는  
 원동변강 수취구역 신영동에서 1910년에 빈농의 가  
 정에서 한생하였다 부친 장희경씨는 1881년생으로 씨할  
 경북도에서 부모들과 같이 계시다가 1966년에 조령지 수취  
 구역 다루지리촌, 신영동, 황거역등지에서 주로 농업에 종  
 사하였다. 장남익 선생은 향촌에서 계속노학을 필한  
 다음 초급은 물리구역 소재지 물리가 시에서 1925년  
 에 졸업하고 1926년에 원동변강 연해구 중심인 블  
 라지보브크시에 가서 중등 기술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에 필하였다. 초급은 나온후 이어고급에 들어가지  
 않고 기술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된것도 경제형편으로 연하  
 여 공장제조소 전문학교를 나온 다음에 낫테련 자작업하  
 여 돈벌어하고 밤이런 대학예과인 로동학원 에서공

부를하여 대학에서 입학시 없은 글러 입학하고 고등  
 상급으로 수업할 예정이었다. 장남익 선생은 본래 결단성  
 이 강하고 지심없는 분으로 자기 계획은 어김없이 실행  
 하여 1924년에 로동학생으로 나와 그해에 원동변강  
 에 가장 유명한 원동변강국립 종합대학 무물과에  
 입학하여, 한인들에 대한 강제어족전까지 3학년  
 년을 마감하고, 한인강제어족시에는 부모들과 분리되  
 여 불라지보르도크 어족원들과 같이 각각흐스한 알  
 라야따 시에 도착하여 알야따 시 국립종합대  
 학에서 공부하였다. 강제어족 당시 장남익 선생의  
 부모들은 원동변강 무린구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있던 한인들의 강제어족 열차는 무르  
 벡코한 하유겐흐주 삼칠릭구역 불린모젤 끌노프  
 에 도착하였다. 장남익 선생은 이러한경에서 알야  
 따 국립종합대에서 일년간 공부하고 부모들을 따라  
 무르벡코한에 오게 되었다. 공부하던 대학으로 전  
 향하여 하유겐흐 국립종합대에서 공부하게 되었으  
 며 장선생은 1939년에 종대 무물과를 졸업하고  
 무르벡코한 교육성의 파견에 의하여 삼칠릭구역 행정  
 소재지인 도이-테베바 시에 있는 고중에 가게 되었다.  
 장선생은 도이-테베바 고중에서 2년동안 우등교원겸  
 교무책임으로 일하시던 1941년에는 하유겐흐주 교육부  
 의 파견에 의하여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불려살고있던  
 형동로 남 불릿-뭇셀에 있는 고중 교장으로 일하  
 게 되었다. 이시기에 있어서 한인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취지에는 큰 애로가 생기였지만 그것은 한인어로 교수  
 하던 교원들은 로어가 부족하여 많은 교원들이 무직업상

대에 최하계 리였으며, 학생들은 한류어론 어저까지  
 교육받던것이 갑자기 큰어로 교육받게되니 역시 애로가 컸  
 다. 때로는 선생이 큰어로 과목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하여  
 전반 학생들이 과목의 정확한 내용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  
 나가는 데로 있었고, 또 학생들중에도 큰어가 특별히 중요한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과목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가 계속 속적었다. 또 부분적 경우에 있어서  
 는 학교에 교원우호는 그대로 있었으나 조선어라 되지 되었  
 기 때문에 큰어로 용이하게 교수할 교원들이 부족하여 부  
 분적 과목들은 공백으로 지나가고 말았다. 이런 경우에서  
 장남익 선생은 아주 팔방리언어였다. 장남익은 한류어론  
 남문지계 잘 하였으며 한류어론 팔방리언어 한 발면에 있어  
 는 아주 능통하였다 남익 선생은 어디에서부터 러시아어  
 로 공부하기 시작하였는지, 블라디보스토크에 한언사대  
 가 있었으나, 선생은 원릉변강 극림중대, 즉 러시아 대학  
 우물라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는데, 강제어족 어학에도  
 큰어로 교수하는 대학에서만 공부하였다. 때문에 한  
 언사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집단 경력 고  
 중에 장남익 선생을 화제한것은 이런 내용으로 전  
 속되었다. 장남익 선생은 어학에서도 말한바와같이 성질이  
 아주 검박하면서도 강한 편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끝호준은 많은  
 경우에 자취조잡어라고 불려왔다 그것은 순전한 한일들로만  
 구성된 경력란 말이다. 때문에 그 경력초대위에 대한  
 학교에서 때문에 학생성원도 99%는 한언아이들이었다.  
 이런 학교에서 순류어론의 교육을 진행하자면 조금 힘들었다

4.  
그 당시 환경에 있어서 상부(행정) 교육은 코어로 하라고 하  
였기에 학교 내에서의 일체 총화는 코어로 하여야 되었으며 이  
런 경우에서 학생들은 신속히 코어를 소유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 선생은 학교 내에서 기틀을 강화하였으며 교육체계를 엄격하  
게 수립하고 각 학과 과목별 교수법으로 조직성있게 진행하였다.  
본래 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동아재에서에서 2년간 교무직업으  
로 일한 경력은 장 선생으로 하여금 교장직무에서 용이하게  
일 할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에서만 강화한것이아  
니라 코리에도 강화하였다. 조선 조국전쟁시기(1945-1945년)  
환경에서는 고등학생들이란 국가 임무수행에 있어서 큰로용력이  
였다. 유즈백란에 한하여서는 전쟁시기 가장 중대한 국가적  
임무는 독화생산수출로 제고하여 그의 절을 제고함에 대연속  
확으로 제고에 건하여 국가적 수배 계획은 풀수없는대로 기한  
전에 실행하는것이였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에서는 일련교  
육일과 9개월중에 3개월은(즉 9-11월) 본전공한공부  
하러가, 그렇지아치면 많은 경우에 몇주일간동안 전혀 폐강  
하고 전종일 독화추수에 동원되어 일하였다. 그런데 독화추  
수에 있어서 기술강화는 학교 강당에서보다 많이 더 어렵었다.  
왜냐하면 넓은 다란 독화실에서 제1안대로 뛰어 단다려 일  
하는 학생들로 관리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장  
남익 선생은 학생군중속, 교원군중속에서 언저하여서도  
당내성있게 굳센 규율로 수립하여 불꽃을 잘 총검리  
저로 자들의 회의에서로 수차 칭찬을 받았다. 장남익  
선생은 당시 30세 넘는 성숙되인 모든 방면으로 보아 잘  
준비된 인물이였으나 아직 12장가전이였다. 바로 어찌  
에 등 학교에는 역시 모든 방면으로 보아 잘 준비 되었으며  
용모로 잘생긴 지리학 선생 박나레스다가 일하고 있었  
다. 그 역사는 크라브노야르스크 시에서 교원대병을 졸업하  
였으며 20세 넘는 새씨 값이였다. 두분은 아푸 분조



제 25 보병군단 본부에 도착한 장남익 선생은 당일 새벽에  
 예후 구역 훈출방향에 파견되어 25군단 산하 1118 탄크  
 기계화 여단에 배속되어 평양까지 도착한 다음 25군단  
 정치부 지시에 의하여 먼전사령부 콜라넨코 소장의 지  
 시를 받으며 일하였다. 먼전사령부란, 군대가 자기권역 지역  
 에서 지방 인민 기관을 지도하는 군인 정치기관업으로 권력  
 을 업어서도 항상 지방 인민기관과 접촉하면서 일하게



사진은 1946년에 장남익 선생이 자기의 친구들인 (뒤쪽)  
 장남익, 나병식 (앞쪽) 모기찬, 정영준 과 같이 찍  
 은 사진이다.

되었다. 당시 북한에서 제일 먼저 진행된 큰 정치적 의의에서의 사업은 호지개혁이다. 농민이 전연구 농부에서 60% 이상을



사정은 장남의 선생의 부인 박 나레스다 씨가 자기 딸 마라 와 아들 딸라 와 같이 평양에서 1955년에 찍은 것이다.

차지하는 북한에서 호지개혁은 큰 혁명적 사업이라고 하였다 농민중에서도 호지가 전혀 없는 변농민이 절대 다수인 나라에서 지극히 호지를 부담으로 볼수있으며 변농민들에게 가족부담이 되 라 문배하여 준다는 물레는 물레중의 물레였다. 이로 인하여 북부적 지방들에게는 살인사건, 화재사건 등이 빈번하였으 며 이당시에 많은 지주들은 남한으로 탈출하였다. 장남의 선생은 이호지 개혁이 종말되자 산업국유화가 시작 되었으므로 인 하여 하로도 될사이 없어 각지방으로 출장 다니며 일하시 었다. 1946년 4월날에는 혼신사업에서 추가를 받아가려 고 자기 살고있던 불릿웃셀 골초크에 가족대리인 딸라 가 돌아간다음 장남의 선생은 새로급방조직된 내각중앙 지도간부학교에 교원으로 파견받아가게 되었다. 내각간부 학교는 공화국내에서 높은 직위에서 일하는 전체간부 - 즉 군 당, 군예원위원회 이상 각포 책임자 및 각성의상등까지 합쳐 대기에 300명씩, 학습기간은 3개월, 계속 순회적

으로 간북양성소 - 다시 말하면 말쑥-레닌주의 사상으로 재  
 교육하는 학교였으며 학교의 명예교장은 김일성 수상이었고  
 교무책임으로는 박영빈 선생이, (이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  
 으로 계신) 역임하였다. 장남익 선생은 내각지도간북학교  
 에서 세계 정치지도관 과목으로, 2차 대전이후 세계 영토  
 들이 어떻게 분할 되었는가 하는 결과를 가르치게 되었다.  
 3년 동안 즉 1949년까지 교수로 계신과 다음 박영빈 선생  
 이 중앙당 조직부에 출타하시자 교무로 대신하여 교무책임으로  
 일하시었다.

1950년 8월 25일에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이 개시되자  
 내각간북학교 교육체계가 얼마큼 변경되자 교무장실로 그대로  
 동평양 사동에 계속 있도록 하였다. 전쟁개시 3개월이 지나자  
 무연군 항공 폭격이 심하게 되자 사중학교는 임시로 순안으로  
 이주하여 가게 되었으며, 조선인민군 조로 왔고, 남조선 대의  
 원 반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언제는 남조선 광영성과 반어란  
 것이 있고 이권취한 내각고급간북은 한명으로 없었다. 장남익  
 선생은 1950년 8월 중순에 당중앙위원회에 초청되어가시  
 게 되었다. 당중앙에는 김일성 수상 외에 각 부장들과 기타 책  
 임자들이 물론 회의 실에 남조선에서 되전되며 내각간북학교  
 에서 공부한 간북들과 기타 당중앙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회의의 범위로 간단하였지만 그 내용도 간단하였으나 그 중  
 대한을 제었다. 문제는 원년군대가 남한 지역의 80%의  
 영토를 해방하였으나, 남한에 남노당이 있기는 하나 그 활약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김일성 수상은 남한에 새  
 로 노동당을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남로당인 것이 아니라  
 조선로동당 각 지역별 지부들을 조직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 8도에 도당 위원  
 장들을 파견하여 보내니 본도라 현지에서 도착하여 말쑥

그대로 조선로동당 도당 등을 조직하고 이 전쟁의 복잡함 시  
 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여 남한의 완전해방을 쟁취하라는  
 지시적 회의였다 바로 이 회의에서 장남익 선생은 총칭북로  
 도당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남한으로 가게 되었다. 남한으  
 로 출발하는 일행에는 남한에서 파견받아와 공복한 당원  
 성자들과 당중앙위원 몇몇씩 배속 되었었다. 각근에 파견되  
 는 일행에게는 현금 몇만원씩 내어주고, 현지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당시 남한으로 계속유반하는 군우를 유한 차들로 리용하  
 여 가라는 하면서, 언젠군 후방북사영관에게 지시하였다고 하  
 였다. 기차표를 물레는 현지에서 도착하여 도당위원장으로 서  
 자기 즉각대로 해결하라고 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남한으  
 로 파견되는 사람돈에게는 그 즉시에서 해당직무에 임명장과  
 로동당 중앙의 파견장을 받게 되었다. 장남익 선생은 총북  
 도당위원장으로의 임명장과 당중앙이 파견하는 파견장에  
 김일성의 직인이 찍힌 것은 후에 받았다. 그 파견장을 보면  
 북한 권력이 여행되는 지역에서 어디든 또 어디의 유한  
 수단어 무효로 갈수있었다. 장남익 선생은 여인 국가의 최  
 고 수뇌자가 서명한 물건을 받아가지고 당에서 정해준 연월  
 들과 같이 평양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다음 한강을 건너서 북측은 아주극심한 그 냉으로 정북  
 도 소재지 함주까지 도착하였다. 도착하고 보니 9월 15일이  
 되고 보니, 각 동강계선까지 나갔던 언젠군은 유엔군에  
 게 압로를 당해나 무질서하게 되었으며, 9월 10일에  
 는 유엔군이 벌써 현지에 상륙하여 한치고 방향으  
 로 남으로 또 북으로 자기 세력을 넓히려 공격하는  
 시기였다. 이런 환경에 봉착한 장남익 선생은 당조직에  
 대한 회의 한번도 소집할나아 없이 어떻게 조직적으  
 로 후퇴하여 다시 북한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문제라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곳 청주는 영선군대가 인선군대가 지나가기도  
안았을 뿐더러, 그 후처리는 영선군대가 들어오지도 않았던  
순에도 당중앙의 좋은 글장들을 취했으나 이곳에서는 북한정  
권이 이행되지 않자마자 북동지휘부에 의해 받았고, 그보다  
도, 인선군대가 총용 백전 백승할 때에는 북한어 종다인  
자랑하던 많은 남한인선들은 인선은 북한을 침략자로 불  
려 전쟁을 개시한 모든 불행의 장본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 이른 장남의 선생 동반자 중 남한 출신들은  
전역다 야간을 리행하여 도망가버리고 인선은 북한 출신  
인원 31명만이 남았다. 장남의 선생은 어떻게 하여서  
여러 유엔군에게 포로 되지 않고 북한에 가야 되겠는데 그  
항상은 홍주, 세천 원주 춘천 을정역이며, 강원도 을정역에서  
평남 양덕 맹산으로 올라가려고 항상을 잡고 도보로 홍주를  
향하여 걸었다. 선생의 계획은 유엔군이나 남한군대를 만나  
지 말자는 계획이었다. 3 일 만에 겨우 홍주에 도착하자 일  
행은 빨빨이 나고 보나 더 걸어갈 수 없었다. 바로 이곳에서 여  
관에서 허름한 옷이 가려진 하는 때에 지방 지위대에게 북  
잡혀 신봉 조나라 시작되었다. 이때에 장남의 선생 일행  
31명은 북한에서 파견된 빨갱이 흑목들이라고 하여 대한  
참군에 강금 된것은 분사한 듯이 없었다. 이걸 바로 9월 25일  
서울에 유엔군에게 점령 되는 날이었다. 그 후 장남의 선생에  
대한 소식은 더 없었다.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희하하면  
유엔군에게 포로되었으면 목숨은 살 수 있었으라고 하나, 장남  
의 선생의 성격에 목숨을 살렸다고 큰 길에 나가 유엔군에게  
후행할 수는 없었다. 물론 지방 지위대는 아무런 형법도  
중우함이 없이 자기 맘 대로 처리하였을 것은 사실이다.  
장남의 선생이 중앙당의 파견에 의하여 남한에 나가신다  
음 남의 선생 목인 박나제스라는 계북 내각 간부학교에서  
로어 교원으로 일하러 가는 사직하고 소련 출신 간부들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중국으로 피란 보내는 피란민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할빈시에 가지 되었다. 여기에서 피란민 가족들은 공북정북에서 내여주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며, 아이들은 할빈에 살고 있는 백계 러시아인 등의 자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조선 동족 상전이 1953년에 끝나자 조선 피난민들을 동년 8월에 조선에 다시 보내게 되자 백나제보다 양도 아이 오누이를 데리고 평양에 나와 소련 출신 아이들과 공부하는 6고공에서 교원일로 하시었다. 남한에 나가신 장선생의 소식이나 있겠는가 하고 전쟁이 끝이든 근 3년간 기다리다가 1955년 말에 자기 친척들이 살고 있는 빌립오텔 길노코에 다시와서 살아가 현재에는 하뉴켄노시 철탄사르구에서 자식 오누이를 거느리고 해롭스럽게 살고 있다. 장남 장이나 딸리는 지금 51세로 하뉴켄노 기술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국영 흥계 부에서 책임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딸 장아라는 하뉴켄노 직조 기술대학을 1학년 하고 출가한 후 현재 울진그타운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음.

백나제보다 안드레엠펠나 양은 현재 연금생으로, 또 조선 혁명을 위하여 희생된 유가족으로 국가보장을 잘받으며 행복하게 살면서 양친의 조선의 신독한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하뉴켄노에서  
 6/24-987. 장남명.